

## 동남아 하늘길, 대기·지연 줄인다

- 15일 동남아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(AMNAC) 정식 가입  
... 국제선 항공 76.6%까지 흐름관리 확대 시행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우리나라가 지난 3월 15일,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(이하 AMNAC)\*에 정식 가입하였다고 밝혔다.

\* Asia-Pacific Cross-Border Multi-Nodal ATFM Collaboration: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교통흐름을 관리·조정하는 국가 간 협력체로 '14년 구성 (중국·태국·베트남·싱가포르·홍콩·필리핀 등 총 11개국 가입)

○ 항공교통흐름관리는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·효율성 확보를 위해 첨두 시간(Peak time)\* 또는 태풍 등 위험기상 시 사전에 항공기 출·도착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,

\* 항공기 운항 수요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로, 동남아·미주·유럽 등 노선별로 상이

○ 이번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노선 중 항공기 운항의 약 48%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장 복잡한 동남아 하늘길 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.

□ 그간, 우리나라는 동남아로 향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본, 대만 등 인접국이 정해준 출발시간 간격을 항공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. 이에 따라, 동일 시간대 동남아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항공사와 여행객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.

○ 이번 AMNAC 가입으로, 동남아행 항공편별로 최적화된 이륙시간을 당사국 간에 직접 조정하는 흐름관리 방법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지상 대기와 공중지연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 항공 당국과 협력을 통해, 다낭행 항공기 평균 지상지연을 273분(1대당 11분)에서 78분(1대당 3분)으로 약 70% 이상 감소시켰다. 항공기 연료 소모를 연간 약 1.45억원 절약하는 경제효과를 거두었으며,

\* (다낭행 1대당 평균 지상 지연) '23.5월 이전 약 11분 → '23.5월 이후 약 3분

○ 중국 및 일본노선에 대해서도 '15년부터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(NARAHG)\*을 통해 약 45.5% 항공편에 대해 흐름관리를 적용하여 왔다.

\* **North-Asia Regional ATFM Harmonization Group**: '14년 구성된 한·중·일 3개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의체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동남아 협력체 가입을 통해 31.1% 증가한 약 76.6% 이상의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흐름관리를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\* 흐름관리 가능 국가(운항편 비중): 중국(23.1%), 일본(22.4%), AMNAC 회원국(31.1%)

□ 국토교통부 이윤상 항공정책실장은 “이번 동남아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 가입은 우리나라 항공 외교의 또 하나의 성과로, 이를 통해 우리 국민과 국적 항공사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
○ “항공교통흐름이 복잡한 아·태지역에서 관련 국가와 협력체계를 지속 해서 강화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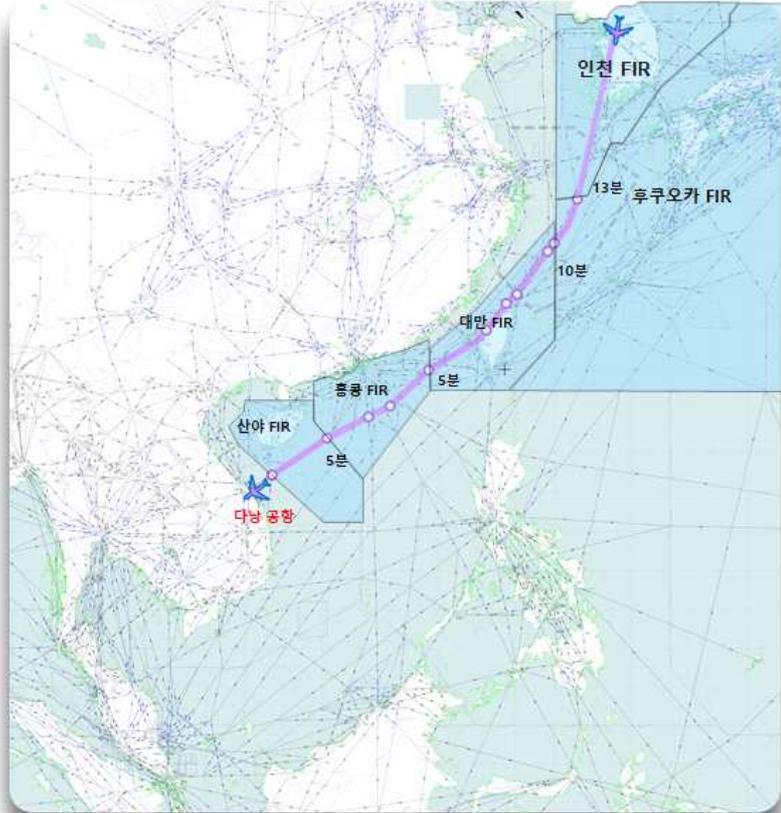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관 항공교통과	책임자	과 장	곽영필 (044-201-4294)
		담당자	사무관	신 경 (044-201-4192)
			주무관	김규태 (044-201-4196)
	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	담당자	과 장	김남극 (053-668-0470)
			사무관	이진종 (053-668-0491)
			주무관	김우진 (053-668-0494)

기  
존

시간분리 기법

여러 인접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각 국의 관제 기관별로 분리 간격을 추가 적용하여 항공기 간 분리 간격이 증가하는 비효율 초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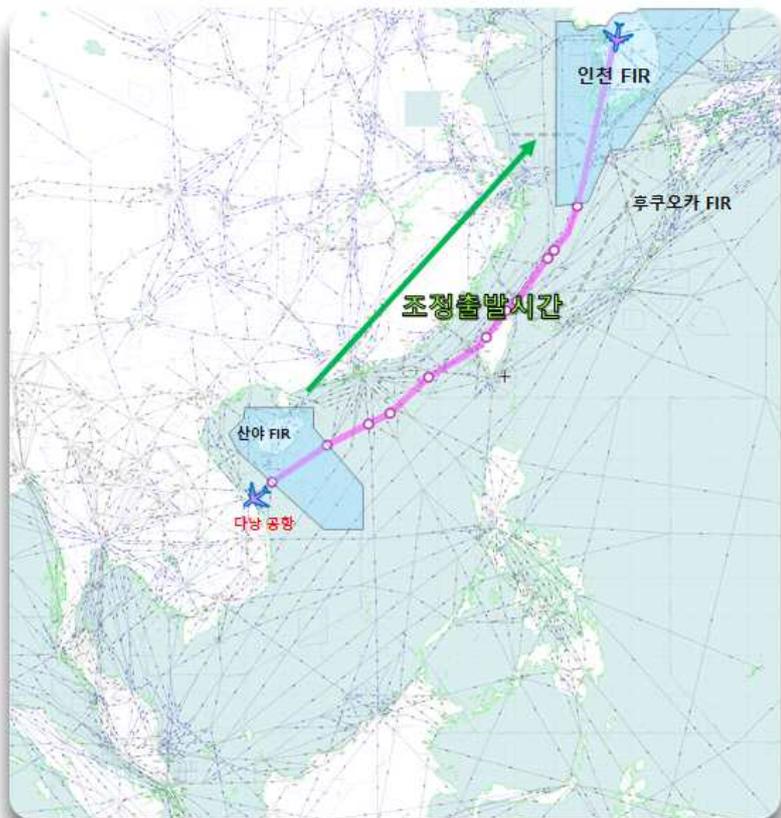
※ 시간분리 적용 예시  
 (산야→홍콩) 5분 분리  
 (홍콩→대만) 5분 분리  
 (대만→일본) 10분 분리  
 (일본→한국) 13분 분리



개  
선

목적공항 도착  
시간 배정 기법

관련국의 항공교통흐름 관리기관에서 도착공항 공역의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화된 이륙시간을 산출하여 항공기 출발 허가 발부, 불필요한 지연이 없어 효율성 증대



## 참고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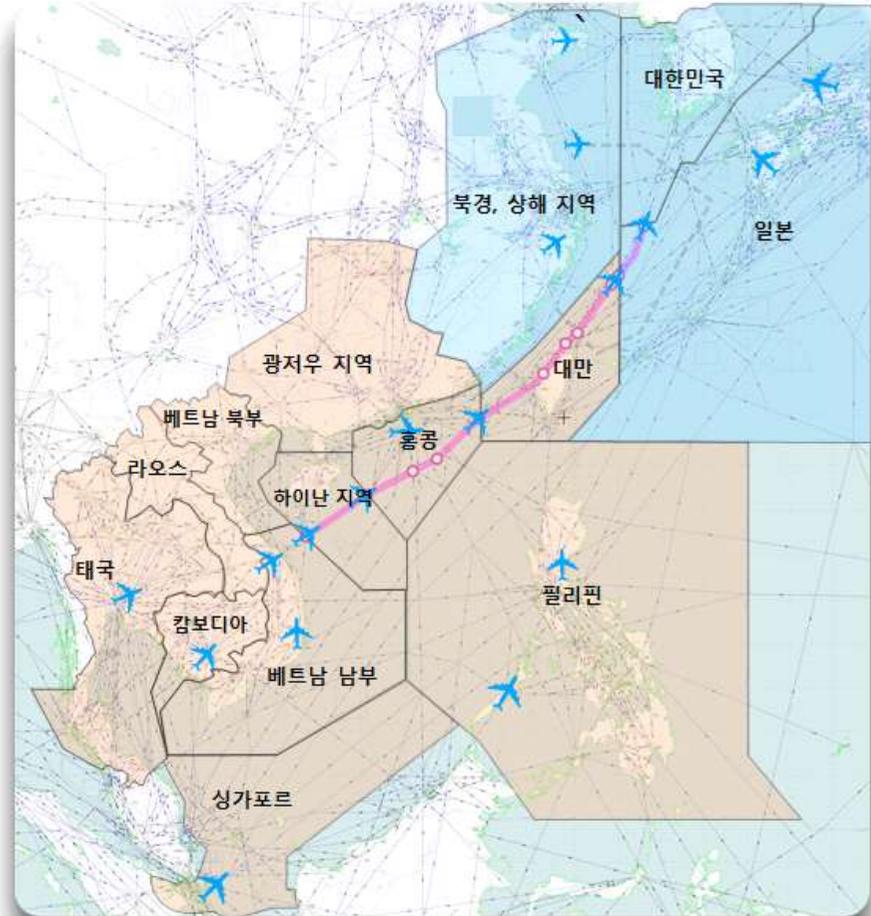
## 항공교통 흐름관리 대상 지역 확대

### □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 흐름관리 협력체 가입 前



흐름관리 가능 국가(운항 비중)  
 중국(23.1%) + 일본(22.4%) = **45.5%**

### □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 흐름관리 협력체 가입 後



흐름관리 가능 국가(운항 비중)  
 기존(45.5%) + AMNAC 회원국(31.1%) = **76.6%**